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대통령 부정선거 규명 시위에도 제자훈련과 큐티 사역 여전



카메룬에서 지난해 10월 12일 대통령선거 이후 큰 파장이 일어났다. 선거 당일 밤 개표 결과 야당 지도자의 승리가 예측됐으나, 27일 발표된 공식 결과는 정부 여당 후보의 승리였다. 이에 각 지역에서 큰 혼란이 발생했다.

특히 항구 도시 두알라에서는 도시 전역에서 시위대가 일어나 도로를 점거하고 방화와 습격이 이어졌다. 주유소와 상점, 정부 청사, 경찰서까지 공격 대상이 되면서 도시 전체가 무정부 상태에 빠졌고, 약 15일 이상 도시 기능이 마비돼 주야간 외출이 불가능했다. 이 과정에서 총격과 방화로 65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시위대 600여 명이 감금됐다. 야당 대표는 공격을 피해 나이지리아를 거쳐 잠비아로 도피했다.

92세로 43년간 통치한 폴 비야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선서 도중 순서를 잊거나 선언문을 잊는 모습도 보였다. 카메룬 도시 곳곳에는 쓰레기가 산적해 악취를 풍기고, 주요 도로는 수년 전 파손된 상태로 방치돼 있다. 국민의 약 70%는 하루 1,000 세파(약 2,500원)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청년 실업 문제는 심각하다.

이처럼 상황은 어렵지만 복음 전파는 계속되고 있다. 강창석 선교사가 섬기는 도파시 센터교회는 오이코스 전도를 위해 1년 내내 주일에 월 1회 모임을 갖고 관계를 통해 가족과 이웃을 전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4주 연속 주일예배를 이웃과 가족을 초청하는 잔치로 진행했다. 매주 약 30명의 초청자가 예배에 참석했고, 이 가운데 80%가 말씀에 반응해 주께 결단했다.

한 초청자는 오는 길에 오토바이가 고장났는데, 그를 초대한 교인은 “사탄의 방해이니 꼭 와야 한다”며 격려했다. 초청자는 결국 교회에 도착해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강단 앞으로 나왔다.

지난해 8월 독일한마음교회 큐티 사역팀이 방문해 훈련을 진행한 이후 약 100여 명이 결단했고, 현재 그중 약 80%가 4개 월 동안 큐티를 지속하고 있다. 노트에 큐티 내용을 기록한 뒤 사진을 찍어 공유하는 방식으로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도파시 교회 제1여전도회 회원인 63세 마망 빅투와 성도는 “큐티 책을 불들고 어떤 날은 4시간을 써름해도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경험했다”며 전도를 위해 책을 한 권 더 요청했다.

강 선교사는 “큐티 세미나 이후 교회의 영적 분위기와 예배가 눈에 띠게 달라졌다”며 “성도들의 믿음이 급격히 변화하고 이전보다 더욱 자라났다”고 전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디모데전서 6:11-12)

하나님, 대통령 부정선거로 혼란스러운 카메룬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력에 대한 위정자의 탐심으로 인하여 시위와 혼란이 계속되어가는 이 땅이 이 때에 더욱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소서. 카메룬에 복음으로 세워진 영혼들이 더욱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가진 교회로 세워주셔서,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더욱 담대히 선포하고 삶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소망이 없어보이는 그 곳의 예수교회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더욱 드러내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미국 11월 중간선거, 낙태 헌법화 여부 놓고 주별 투표 예정

워싱턴스탠드는 26일,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낙태를 헌법적 권리로 명문화할지를 묻는 주 헌법 개정안 투표가 동시에 진행된다고 보도했다. 아이다호, 네바다, 오리건, 버지니아 등에서는 낙태를 ‘생식의 자유’ 또는 ‘사생할 보호’라는 명목으로 주 헌법에 명시하려는 개헌안이 투표용지에 오르거나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개정안들은 낙태를 포함한 임신·출산·산전·산후 관리 전반을 개인의 기본적 권리로 규정하며, 주 정부의 개입을 강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미주리에서는 2024년 통과된 친낙태 개헌을 되돌리고 태아 생명을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개헌안이 추진 중이다. 이 개정안은 낙태 허용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미성년자 성전환 시술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전문가들은 주 헌법에 낙태 권리가 명시될 경우 향후 주의회나 행정부 차원의 수정이 극히 어려워지고 법원 판결의 기준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투표가 단순 법률이 아닌 헌법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한다. 이에 낙태 찬반 진영 모두 대규모 자금과 조직을 동원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요한계시록 22:10,12)

하나님,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진행될 낙태에 관한 헌법 개정안 투표를 앞둔 미국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그 땅을 거룩한 나라로 세워 주십시오. 개인의 기본적 권리라는 명분으로 태아를 살해하는 낙태를 옹호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주사 주님의 때가 가까이 임했음을 깨달아 각자의 행위를 살피게 하소서. 한 나라의 헌법이 결정되는 이 때에 미국 교회를 일깨워주셔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미국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교회로 일어나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 에콰도르, 해안지대 도시서 연쇄 총격으로 8명 사망

에콰도르 해안 지역인 마나비 주의 만타와 몬테크리스티 시내에서 지난 25일 밤 4건의 무장 총격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최소 8명이 숨졌다고 27일 뉴시스가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총격은 오후 7시 50분부터 밤 10시 50분 사이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첫 사건은 몬테크리스티에서 거리에서 보행 중이던 부부가 총에 맞아 사망했고, 이어 만타 시내에서는 자택 앞에 앉아 있던 남성 1명이 총격으로 숨졌다. 세 번째 사건은 만타 벨라비스타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총격범이 가족 축하 파티 중이던 남성 1명을 살해한 뒤 이웃들에 의해 부상을 입은 상태로 붙잡혔다. 가장 큰 피해는 같은 날 밤 10시 50분 몬테크리스티에서 발생했다. 총격범들이 차량 2대를 이용해 모여 있던 무리를 향해 총격을 가해 4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관광·항구 도시인 만타 일대에서는 올해 1월에만 총기 폭력으로 51명이 사망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나님(사무엘상 22:23)

하나님, 총기 사건으로 한 달 만에 무려 50명 이상이 사망할 정도로 범죄가 끊이지 않는 에콰도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범죄조직과 마약 카르텔로 인해 불안한 치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에콰도르의 교회가 참된 피난처가 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여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께로 나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 땅의 영혼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된 예수교회로 세워져 죽음으로 가득한 땅에서 생명의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구원할 것임이라”
기독교인 체포 후 고액 보석금 부과… 또 다른 박해 수단**



이란에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박해가 종교 탄압을 넘어 경제적 착취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국제크리스천컨션(ICC)이 22일 밝혔다.

기독교인들이 체포된 뒤 석방을 조건으로 요구받는 보석금과 벌금이 수만에서 수십만 달러에 이르며, 가난한 신자 가정들을 극심한 재정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란 사법당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이유로 기독교인들을 위협하고, 신체적 학대를 가하며, 투옥할 뿐 아니라 수년간 기독교 신자들에게 비상식적으로 높은 보석금을 책정해 왔다.

가정교회 지도자인 조셉 샤바지안(Joseph Shahbazian)은 2020년 6월 기독교 활동을 이유로 체포돼 30억 토만(약 2억 2,000만 원)의 보석금을 부과받았다.

샤바지안은 법원에 호소한 끝에 자신과 어머니의 아파트 소유권 증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20억 토만(약 1억 4,700만 원)을 보석금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이후 1년이 넘는 기간을 복역한 뒤 2023년 석방됐으나, 기독교 활동을 계속했다는 이유로 2025년 다시 체포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사례로, 기독교 여성 말리헤 나자리(Malihe Nazari) 역시 2020년 6월 신앙을 이유로 체포됐으며, 10억 토만(약 7,300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일시적으로 석방됐다. 그러나 그는 2022년 “국가 안보를 교란할 목적의 단체를 설립하거나 지도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약 8개월간 수감됐다.

ICC는 이러한 사례가 일부에 불과하다며, 보석금을 지불해 얻은 자유는 대부분 일시적이며, 이후 재체포와 중형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ICC는 이란 정권이 기독교인의 돈을 빼앗는 것은 기독교인들 박해하는 또 하나의 수단이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전적 대가를 치르게 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기독교인의 권리를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프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이사야 49:24-25)

하나님, 이란 당국의 종교 탄압이 점점 더 교활해져 극심한 경제적 위기를 맞은 가난한 기독교인들의 깊은 신음을 들으사 주의 긍휼과 사랑으로 저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직면한 이란의 교회가 주께 부르짖어 어려움에서 건지시는 여호와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권세를 무력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란의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이란 땅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멕시코 기독교 지도자들, 범죄조직 표적 돼… 복음 전파 ‘위협’으로 간주

멕시코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영혼들을 범죄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이유로 범죄조직의 직접적인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고 스페인 기독매체 에반헬리코디히탈이 최근 보도했다. 기독 단체들에 따르면, 멕시코는 현재 라틴아메리카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범죄 문화와 정반대의 가치를 전파하는 기독교 사역은 마약 카르텔과 범죄 조직에게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복음이 청소년들을 마약과 범죄에서 벗어나게 할수록, 범죄조직은 이를 통제력 약화로 받아들이고 폭력으로 대응한다. 라틴아메리카 종교자유 관측소(OLIRE)는 멕시코에서 종교 활동이 성직자와 성도는 물론 그 가족들의 생명까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공격은 예배당 파손을 넘어 납치, 갈취, 살해 협박, 실제 살인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수백 곳의 복음주의 교회가 안전 문제로 문을 닫았다. 멕시코 오픈도어 선교회의 호르헤 히메네스는 “이것은 폭력이 점점 일상화되는 나라에서 인권과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시급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모든 성도 중에 자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에베소서 3:8-9)

하나님, 복음 전파가 범죄조직들에게 위협으로 인식되어 기독교 지도자들이 공격 대상이 된 멕시코를 주님 손에 의탁 드립니다. 주의 종 된 그 땅의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담대히 선포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죄와 어두움에 사로잡힌 그 땅의 다음세대와 영혼들이십자가에서 드러내 주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거룩한 예수교회로 세워지게 하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멕시코에 하나님 나라를 더욱 부흥케 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 케냐, 가뭄 악화로 200만 명 이상 식량 불안

케냐에서 가뭄으로 200만 명 이상이 심각한 식량 불안에 직면했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밝혔다. 2025년 우기 기간이었던 10-12월 강수량이 평년의 30-60%에 그쳐 일부 지역에서는 1981년 이후 최악의 가뭄이 발생했다. 케냐 국가가뭄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10개 주가 가뭄 상태이며, 만데라는 심각한 ‘경보’ 단계이다. 케냐 정부는 가뭄이 지속될 경우 최대 250만 명이 극심한 기아와 물 부족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WHO는 가뭄으로 영양실조가 증가하고 콜레라, 장티푸스 등 수인성 질병의 위험이 커진다며, 의료 키트와 필수 물자를 사전에 지원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가뭄과 폭염, 향후 돌발 홍수가 복합적인 보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WHO는 식량과 안전한 식수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긴급한 국제 협력을 촉구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신명기 11:12)

하나님, 케냐에서 발생한 최악의 가뭄으로 고통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사 비를 내려 그 땅을 적서 주십시오. 가뭄에 따른 질병의 위험과 식량 위기에 놓인 그 땅을 위해 국제 사회가 연합하여 도움의 손길을 뻗게 하시고, 특별히 열방의 교회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로 나아가게 하소서. 케냐가 주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임을 선포하오니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주를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너를 인도하였은즉 네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리라”
내전 다시 격화… UN “일주일간 18만명 피란”**



남수단 내전이 다시 격화하면서 대규모 피란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AFP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남수단 당국을 인용해 “최근 일주일 동안 종글레이주 4개 카운티 전역에서 18만 명 이상의 피란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OCHA는 “대부분의 피란민이 나무 밑이나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심각한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주거지와 보건 시설 상당수는 불에 타 의료 접근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지에서는 식수 부족과 전염병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내전은 수도 주바 북쪽에 위치한 종글레이주를 중심으로 악화하고 있다. 주바의 한 비정부기구(NGO) 소식통은 “지난 달부터 무력 충돌이 다시 심해졌으며, 종글레이주 대부분 지역에서 민간인 접근이 차단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피란민은 AFP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며 “상황이 더 악화하면 늘지대로 피신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가족과 생계를 모두 잃고 장기간 유랑 생활에 내몰리고 있다.

유엔 남수단 평화유지군(UNMISS)은 최근 성명을 통해 민간인을 겨냥한 폭력과 방화, 약탈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무장 세력이 마을을 굽슬해 가옥을 불태우고 주민을 강제로 이주시킨 사례가 보고됐다. 유엔은 즉각적인 적대 행위 중단과 휴전 합의 준수를 촉구했다.

남수단 내전은 2013년 살바 키르 대통령(딩카족)과 리크 마차르 제1부통령(누에르족) 간의 권력 다툼으로 시작되어 부족 간 전면전으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약 40만 명이 숨지고 수백만 명이 피란민이 됐다. 2018년 평화협정으로 마차르가 정부에 복귀해 내전이 공식 종료됐으나, 2024년 3월 마차르 부통령이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구금된 이후 정치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무력 충돌이 재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수단은 고질적인 부패와 취약한 국가 시스템으로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국가다.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구 1,200만 명 중 약 770만 명이 식량 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 분쟁 장기화로 농업과 시장 기능이 마비되면서 인도주의 위기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민간인 보호와 인도적 지원 통로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잠언 4:11-12)

하나님, 2013년부터 시작된 내전이 평화협정으로 멈춘 것 같았지만 또다시 격화되면서 폭력과 약탈을 피해 대규모 피란길에 나선 남수단 주민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한순간에 집과 고향을 떠나 안전한 곳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의 불안한 마음을 불들어주시고 그 땅의 교회를 통해 생명의 길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미래를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걸음을 내딛는 이들을 십자가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사 곤고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 소망을 불들며 나아가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영국, 커플용 '자살 캡슐' 개발에 생명단체 반발

영국의 조력자살 옹호 운동가 필립 니츠케 박사가 커플이 동시에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새로운 가스식 자살 캡슐을 개발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라이프뉴스에 따르면, 니츠케는 기존 1인용 조력자살 기기 사르코에 이어,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가 동시에 버튼을 눌러야 작동하는 이른바 더블 더치 자살 캡슐을 고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캡슐에 대해 “죽을 때 너무 외롭다”는 피드백이 있었고, “누군가에게 안긴 채 죽고 싶다”는 요구가 새로운 장치 개발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니츠케에 따르면 해당 장치는 3D 프린팅 방식으로 제작되며, 수개월 내 완성이 가능하다. 두 사람이 모두 사망 의사가 있을 경우에만 동시에 버튼을 눌러야 작동하도록 설계됐다. 이에 대해 영국 생명 보호 단체 라이트 투 라이프 UK의 대변인 캐서린 로빈슨은 “한 번에 두 생명을 끝낼 수 있는 조력자살 캡슐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극히 우려스럽다”며 “강요와 압박에 의한 죽음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 놓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이사야 46:7-8)

하나님, 각 사람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패역을 일삼는 자들을 진리로 깨우쳐 죄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생명의 가치를 조롱하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만드는 배후의 사탄을 꾸짖어주시고 그의 거짓을 빛 가운데 드러내 주십시오. 영국의 교회를 일깨우사 잠시의 고난을 피하여 죽음을 생각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영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생명을 존중하는 거룩한 나라로 일으키소서.

▲ 우크라이나, 러 에너지 시설 공습 속 영하 30도 혹한 예고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 집중 타격으로 극심한 난방·전력난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영하 30도의 혹한이 예보됐다고 29일 연합뉴스가 AFP통신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기상센터는 다음달 1-3일 야간 기온이 영하 30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남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한파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이며, 기온은 4일부터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키이우와 하르키우 등 주요 도시에서는 여전히 상당수 가구가 난방과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키이우에서는 이 달 초 공습으로 아파트 6,000동의 난방 공급이 중단됐고 현재도 700동이 복구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추가 공격을 준비 중이라는 첨보를 입수하고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이탈리아는 우크라이나에 산업용 보일러 78대를 지원했으며, 수주 내 300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여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시편 9:8-9)

하나님, 에너지 시설이 러시아에 의해 파괴되어 주요 도시의 많은 가구에 난방과 전력이 끊겨 혹한의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우크라이나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4년째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속히 종식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여러 가지 위험에 빠진 영혼들이 산성이 되시는 주님께 피하여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열방의 교회가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신 주님께 기도의 손을 들어 주의 응답하심을 보게 하소서.